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민자 적극 유치, 4대권역 개발”

“올해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위해 이미 다져진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더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7일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가속화, 100년을 바라보는 신안의 녹색성장산업, 늘 푸른 생태환경의 섬 공원화,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보건·복지·문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석류·고사리·블루베리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친환경 생명산업이 특화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생산지원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축제 연중 개최

또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갯벌과 칠게 등의 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하고 해양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과 페어구류 등에 대한 유상 수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바다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올해는 무엇보다 친환경 농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정착시켜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업지구 대폭 확대, 친환경 농기계와 저온저장고의 보급, 버섯자리를 상토 지원과 친환경 인증 벼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마늘·시금치·참초 등



4대 권역개발도 박 군수의 관심 분야다. 박 군수는 신안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특성에 맞는 테마 발굴,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신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해 지역개발을 앞당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도·중도·임자면 등 북부권에는 조선단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어공장의 활성화와 새우젓 가공공장 신설, 태양광발

전소 및 울도 크레타 아일랜드 조성, 사육도~중도 연륙교, 슬로타운 조성, 해변승마장, 톨립단지 조성 등 해양 휴양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부권에는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 야생동물공원, 풍력발전단지, 하의~신의 연도교, 한옥 예술인촌, 종합복지타운 등을 추진해 해양레저관광지로 조성하고 흑산군은 황도 국제해양생태공원, 국제 철새공원, 흑산 일주도로 사업, 특산물 판매시설 등을 서둘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해양생태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어족자원 보호 주력

박 군수는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과 계획을 수립해 특색있는 생태·전원마을로 가꿔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생명의 땅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올해 ‘신안군 기후변화 대책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목포 ‘사랑나눔 111운동’ 열기 확산

목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최근 독거노인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목포시청 60여 개 부서 1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1부서 1시절 1가정 이상’ 결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는 ‘사랑나눔 111운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청 제공)

목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최근 독거노인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목포시청 60여 개 부서 1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1부서 1시절 1가정 이상’ 결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는 ‘사랑나눔 111운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청 제공)

목포 올 관광객 600만명 유치 올인

홍보관 운영·팸투어·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

국제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목포시가 올 한해 관광객 600만명 유치를 선언했다.

시는 6일 올해 관광객 600만명을 유치를 통해 관광목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광수용대체 품질개선 시책 ▲해양레저·테마·체험·체육류 등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시민과 관광객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축제의 내실화 등 4대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해설인력 역량강화 교육,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음식·숙박 등 관광관련

업종의 시설개선과 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테마·체험·쇼핑·연령성호형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맛의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을 위해 음식산업의 관광상품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관광마케팅을 위해 주요 박람회와 전국 축제에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우수여행사·인론인 초청 팸투어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광목적포를 일일 계획하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군 ‘한눈에 보는 무안 향교’ 책자 발간

무안군이 최근 사라져 가는 유교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 ‘한눈에 보는 무안향교’ 책자(사진)와 동영상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무안향교의 연혁, 문묘석전제 및 기로연에 담긴 의미와 용어 해설, 무안향교에 속속된 19개 사우의 연혁과 제형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또 무안군은 무안 유교문화의 산실인 무안향교에서 이뤄지는 각종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점차 잊혀져가는 전통의식을 후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무안향교와 사우들의 연혁 및 특징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성수기자 dss@

선박사고 주원인은 ‘안전 불감증’

서남해 사고 선박 60척 조사 정비불량·운항 부주의 때문

지난해 전남 서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운항 부주의 등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역에서 사고가 난 선박 60척 가운데 34척은 정비불량, 26척은 운항부주의가 사고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선박 중 바다 밑으로 침몰한 1척을 제외한 59척을 구조해 피해액은 2억5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해와 비교해 사고선박은 19척,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24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타기 고장, 추진기 장애 등 단순 조난사고가 49척으로 전체의 81.6% 차지했고 충돌, 좌초, 침수 등 중요 해양사고는 11척으로 18.4%였다.

선종별로는 여선이 53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상 상황별로는 기상악화시 사고가 난 선박이 총 58척으로 집계돼 불가항력적인 기상불량보다 해상종사자의 부주의가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사고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고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목포 원도심 생활체육공원 이달중 개장

목포시 산정중 생활체육공원이 1월중 문을 연다.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톨널장, 게이트볼, 다목적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는 임의경작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원도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탈바꿈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산정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건설에서 1만7천215㎡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긴급 중소기업자금 50억 지원

목포시가 관내 일부업체의 도산을 우려해 1월 중순부터 긴급 중소기업 발전기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목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가 해당되며, C&중공

업 협력업체 중 제조업 관련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 이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기관과 업체간 협약에 의해

지급되며 목포시에서 5%의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자급지원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수출 실적, 미지급금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까지 목포시청 투자총괄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270-3356) /목포=임영춘기자 lyc@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phone numbers for various districts in Mokpo.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영화안내' (Movie Guide) and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Movies Popular Movies Enjoyable Time). Lists various cinema chains lik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with their movie listings.